

통일을 말하다

먼저 온 통일

희망을 꿈꾸다

소식을 전하다

즐거움을 만나다

공감을 나누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희망의  
메시지



경기지역회의  
어깨동무하기  
방학캠프



“평화통일은 힘들어도  
극복하고 가야  
하는 길”



제1기 청년  
글로벌통일공공  
외교대사 발대식 개최

통일을 말하다

① ② ③ ④

포커스①

8·15 광복절 경축사와 평화통일의  
기반구축



8·15 광복절은 나라 잃은 설움에서 벗어난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분단으로 인해 아직 우리에게서 미완의 축복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8·15 광복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더보기

먼저 온 통일

①

어깨동무 멘토링

경기지역회의 어깨동무하기 방학캠프,  
멘토-멘티간 친밀도 높여



부슬비가 내리던 8월 중순 경기도의 한 청소년수련장에 힘찬 '화이팅' 구호가 울려 퍼졌다. 민주평통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의 어깨동무하기 방학캠프가 열린 것. 멘토 멘티간 서먹서먹한 시간도 잠시...

+ 더보기

희망을 꿈꾸다

① ② ③

또 다른 시선

한국음악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을 사랑해주세요



소식을 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Nuac News

민주평통의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활동소식을 소개합니다.



통일시대



자문회의소개



지나호보기

웹툰

세계 영화 흥행 1위 '광개토대왕'



동영상

100인 통일 인재들의 진검 승부!  
제4회 역사-통일골든벨 개최



거슬러 오르자면 천 년하고도 수 백 년을 더 지난 이야기다. 패국의 길로 들어선 옛 나라의 왕은 나라의 이름을 딴 새로운 약기를 만들도록 했다. 민심을 하나로 모아 나라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에서였다 ...

+ 더보기

## 즐거움을 만나다

① ②

### 통일레시피

이북식 찹쌀 도넛 '우메기떡'



우메기떡은 '우메기 빠진 잔치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칫상에 빠지지 않고 많이 올랐던 떡으로 '개성주악'이라고 불린다. 햅쌀이 나올 때 많이 만들어 먹는 우메기는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막걸리와 ...

+ 더보기

경북 성주군협의회는 7월 30일 경주코모도호텔에서 부산 기장군협의회와 자매 교류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통일특강을 열었다. 전남 해남군협의회는 7월 30일 문화예술회관에 ...

+ 더보기

## 공감을 나누다

① ② ③ ④

### '친구들이 나랑같이 여기가자' 당선작

북한친구들아, 나랑 같이  
우리학교에 가볼래?



저는 북한의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북한의 친구들도 교복을 입으니까 우리나라의 교복문화가 신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한 달에 2번은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은 ...

+ 더보기



## 이벤트



이벤트 당첨자 발표 >





8·15 광복절은 나라 잃은 설움에서 벗어난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분단으로 인해 아직 우리에게 미완의 축복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8·15 광복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러한 8·15 광복절의 의미를 고려하여 경축사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을 제시하여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6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상을 피력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분단의 비정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하였다. 또한 평화통일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발족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에 따라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경축사에 담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준비 관련 구상에 대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재천명하였다. 통일준비가 비정상성의 현실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구현 차원에서 작지만 실천가능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의 구현 차원에서 작지만 실천가능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의 참여를, 민생분야에서는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추진을, 그리고 문화분야에서는 내년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첫째, 환경의 작은 통로를 통한 통일의 준비이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환경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금년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통일로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생의 통로를 통한 통일준비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통한 상호 고통의 해소와 작은 마을에서부터 남북한이 함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민생인프라는 경제개발 노하우의 공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의 성장동력 활용을 통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문화의 통로를 통한 실질적 통합의 준비이다.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융합해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하는 사업과 함께,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일의 비전과 목표는 크게 설정하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는 작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작은 통로'와 상호 소통이라는 작은 통일의 구체적 준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남과 북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작은 통로를 마련하여 어느 일방이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는 일방향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상호 소통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실천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작은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융합해나가는 '융합'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진정한 '융합'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해가자는 것이다.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의 수행을 통해 장단점을 융합해 실질적인 통일의 기초를 닦아나갈 때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통일준비과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올바른 선택도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통일준비과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올바른 선택도 강조하였다. 핵을 포기한 카자흐스탄과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베트남, 미얀마가 이웃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에 대해 흡수통일로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왔다. 통일준비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북한의 고립을 원하지 않고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을 바란다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경축사는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의 과제와 '지속 가능한' 통일준비 방향을 담고 있다. 내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앞으로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된 3개 분야에서 남과 북이 작은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여 내년에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가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작은 통일 준비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조속히 작은 소통의 통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전세계 카톨릭 종교의 수장으로서의 사목 방문이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역대 어떤 국가 원수의 국민 방문보다 전 국민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시기가 광복절과 겹치는 까닭에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황의 메시지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교황은 4박 5일 총 100시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였고 그때마다 민족의 분단과 평화적 통일, 화해와 협력에 대한 조언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음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중 첫 번째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과 기원이었다. 교황이 전하는 평화는 한국이 겪었던 식민지의 참상과 6.25 전쟁의 상흔을 의연하게 딛고 일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깊은 인상과 이를 통해 동아시아와 나아가 전세계에 평화의 절실한 대의를 구현하는 모범으로서의 한반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황은 방한 직후 평화를 정의와 일치와 같은 맥락에서 불멸의 희망이자 인류의 목표로 삼고 한국과 한국인들이 과거에도 그러하듯 현재와 미래에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전파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교황은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등 공식 행사를 통해 그가 전하고자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북관계를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관계에 비유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면서 북녘 형제들과의 화해를 위한 우리들의 열린 마음과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화해의 기본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되 단순히 그들의 말만 듣고 대응하는게 아니라 전해오는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게 우선이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교황의 두 번째 메시지는 화해와 용서에 대한 소신과 포용적인 입장 및 방식에 대한 것이다. 남북이 분단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 화해란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희망이자 현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현명하고 적실성 있는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교황은 방한 기간 중 많은 행사에서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면서 지난 60년 이상 한민족이 겪어온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회고할 때 용서와 화해만큼 소중한 지혜로운 해법은 찾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짧은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명동성당에서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서 용서와 화해에 대해 죄지은 형제에게 일흔에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용서를 통한 화해에 관한 그의 소신을 다시 한번 피력하였다.

남북관계를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형제관계에 비유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겠는가를 반문하고 북녘 형제들과의 화해를 위한 우리들의 열린 마음과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화해의 기본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되 단순히 그들의 말만 듣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해오는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게 우선이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한 기간 중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분단과 갈등의 상처를 위로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피부로 느끼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교황은 남북분단이 야말로 성서에도 무수히 언급되어있는 형제들 사이의 아픔이며 한국인들이 이를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무적인 희망을 남겨주었다. 교황은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청년대회 참석자들과의 대화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상기하면서 남북의 형제들이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경쟁의 승패를 논하기보다 하나의 형제로서 하나의 가족을 재구성하는 자세로서의 통일방식을 제시하였다. 성서의 내용에서도 그러하듯이 갈라진 형제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 같은 전통을 향유한다면 이는 어머니가 같다는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인들을 위로하고 고무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그의 사목적 방문이 경색된 한반도 정세에 가져올 새로운 파장과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기대들이 있었다. 과거 동서냉전시기 공산권이었던 폴란드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적극적인 대공산권 행보에 비추어 마지막 냉전의 현장인 한반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획기적인 대북 메시지와 남북갈등을 풀어낼 전향적인 해법에 대해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도 각기 기대가 컸음도 사실이다.

교황이 남긴 평화와 용서, 화해와 통일을 향한 원론적이고 단순한 메시지는 오히려 현실의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와 한반도 주변국가 모두에게 긴 울림으로 남을 것이며 먼 훗날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황의 방문 시기가 광복 69주년 기념일과 겹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9월에 있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었기에 더욱 관심을 모았으나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교황은 방한 기간 중 남북한의 정치

적 실상이나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나아가 북한의 종교탄압 그 자체에 대해서조차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교황은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공식 면담에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핵없는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그의 방한 목적을 사목적 방문에 한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혹자는 북한 정권이나 지도자는 물론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해 침묵했다는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아시아청소년대회를 축하하고 124인의 한국인 순교자들의 시복식을 주관하는 사목적 방문이 주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의 행보와 메시지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며 미래지향적이자 사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교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독재체제에 대해 누구보다 분개했을 분은 전 세계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었을 것이다. 아시아의 등불이자 전 세계 평화의 대의요 희망인 한국인들이 분단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누구보다 절절히 가슴아파했을 분도 교황이었을 것이다. 이같은 교황의 행보와 메시지의 행간을 이해한다면 그가 남긴 평화와 용서, 화해와 통일을 향한 원론적이고 단순한 메시지는 오히려 현실의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와 한반도 주변국가 모두에게 긴 울림으로 남을 것이며 먼 훗날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향한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제공 : 청와대>



# 세계 영화 흥행 1위 '광개토대왕'

이택종



The Great King Sejong?  
이거 우리말로 '세종대왕'  
아니냐?  
왜 제목을 영어로 붙인 거냐?

이 영화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먼저 개봉됐어요. 통일  
이후 한국영화가 세계적으로 워낙  
인기가 높거든요.



우리나라 왕 이야기가 세계에서  
인기가 있다고?

'타이타닉'이나 '아바타' 정도는  
왜야 글로벌 무비인거 아니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냐?

남북이 통일된 후에 역사 고증이 활발  
해져서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공신력을 갖게  
됐는데, 남북한의 영화산업이 만나 이걸  
멋진 영화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번에 'The Great King Sejong'이  
'광개토대왕' 영화 흥행기록을 갱신할 것 같아요.

오호! 이제 헐리우드, 발리우드를  
넘어서 진정한 한류우드가 되는구나!



'e-행복한통일'에서 독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 이후가 궁금하다', '통일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를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웹툰을 통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가상현실로 보여드립니다. 단, 웹툰 내용은 상상일 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 인천아시안게임과 북한선수단

글. 김주성 이사(북한자유연맹)

9월 19일 인천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이미 북한은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의사를 표명했지만 아마도 선수단 규모는 전례없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한 체육선수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국가종합팀 선발 후 선수평가전 벌여 최종 출전권 획득

북한에서는 체육선수들의 국제경기 참가가 최상의 꿈이고 로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한 번 외국에 가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선발기준도 엄격하다.



북한에는 각도별, 직할시(광역시)에 체육학원과 선수단이 있고 그 외에도 군부, 사법기관, 내각부처(관공서) 마다 체육선수단이 만들어져 있다. 그들은 남한의 직업선수들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하고 있으며 해마

다 열리는 국내경기에서 순위를 정하고 있다. 북한의 국내경기를 보면 우선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열리는 '백두산'상 체육대회,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열리는 '만경대'상 체육대회, 그리고 9월 9일 국경절을 계기로 열리는 '공화국 선수권대회'가 국내랭킹을 정하는 기준경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남한처럼 국가종합선수단이 평양에 설립되어 있어 각 지역과 군대에서 선발된 우수 선수들을 집합시켜 국제경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국가종합 팀에 소환된 다음에도 국제경기 참가를 위한 선수평가전을 벌여 최종적으로 출전권을 획득하게 되는 최종 관문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집단경기(팀 경기)보다 개인종목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종목이 국제경기에 참석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육선수들은 아무리 재능이 있고 기량이 높아도 훈련시설과 환경, 심지어 섭취해야 할 영양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육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북한선수들은 육체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으로 체육을 하는 것 같다.

## '미녀 응원단' 선발기준 엄격, 파견 전 철저한 교육 받아

비록 북한이 29일 이번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미녀 응원단'은 남한 뿐 아니라 외신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경기 성과보다 북한사회의 이미지 관리와 체제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 같다.

북한은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공화국의 대외적 위상'을 망신시키는 일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체육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외국에 가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받게 되고 돌아와서도 꼭 총화사업을 진행한다. 쉽게 설명하면 가야 할 나라에 대한 동향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행선지에 도착한 다음 지켜야 할 행동규칙이나 대처법, 특히 남한사람들 앞에서 취해야 할 언행과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교육 시킨다.



이미 전에 남한에 왔던 미녀응원단들이 김일성, 김정일의 피켓이 빗물에 젖는다고 비옷을 벗어 덮었던 일이나 김정일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아무데나 걸어놓았다고 야단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세뇌교육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국한 다음에 겪어야 할 '사상검토'에서 곤경을 치르지 않으려면 당연히 취했어야 할 행동인 것이다.

그만큼 응원단 선발기준도 엄격하다. 명색이 '미녀 응원단'이다 보니 미모도 있어야 하고 가정환경도 좋아야 한다. 대체로 보면 평양에 있는 대학생들과 군 상층부에 복무중인 여군들이 선정되는데 무용전공자나 가수와 같은 예술전공자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이설주가 미녀응원단 출신이니 만큼 선발기준이 '수준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월드컵 등 일부경기 생방송... 인천아시안게임도 생방송 가능성 높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역시 주목할 만한 종목은 여자 축구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개별종목인 유도(유술), 복싱(권투), 역도(력기), 태권도종목에서도 불만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과정을 북한주민들이 동시에 볼 수 있을까?

북한에서도 체육경기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월드컵이나 올림픽, 세계선수권을 많이 좋아한다. 다만 직접 현지에 가서 보거나 생중계 (LIVE)방송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예전에 북한에서는 북한선수가 국제경기에 출전해서 이기면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친 경기는 철저히 숨겼다. 특히 미국, 일본, 남한을 상대로 이긴 경기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재방송을 내 보냈다.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남한선수들이 4강의 신화를 이루었을 때에는 경기과정을 그대로 송출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평양에 있는 정주영체육관에 태극기가 공공연하게 게양되기도 했으며, 남아공월드컵 때도 북한 팀이 출전하는 경기 일부를 그대로 생중계 한 적도 있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예전의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리얼한 경기소식을 그대로 중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시안게임 개최까지 얼마 안 남았다. 전후 사연이 어떨든 남북이 한마당에 모여 앉아 함께 웃고 떠드는 것만 해도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위안을 순간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경기지역회의 어깨동무하기 방학캠프, 멘토-멘티간 친밀도 높여

부슬비가 내리던 8월 중순 경기도의 한 청소년수련장에 힘찬 '화이팅' 구호가 울려 퍼졌다. 민주평통 통일맞이 하나·다섯운동의 어깨동무하기 방학캠프가 열린 것. 멘토 멘티간 서먹서먹한 시간도 잠시, 이날 캠프에서 탈북청소년 멘티들은 민주평통 멘토 자문위원들과 함께 4륜바이크 등 야외체험활동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멘토-멘티가 함께 체험하는 활동 위주로 진행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는 지난 8월 13일(수) 한울유스센터(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경기지역 멘토 자문위원, 멘티, 멘티 가족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방학캠프를 개최했다.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방학캠프는 민주평통 각 지역회의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동 멘토링 활동으로, 멘토-멘티 간 소통은 물론 다른 팀과 멘토링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박해진 경기부의장 ▶



이날 멘토-멘티들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뒤, 멘토-멘티 팀별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4륜바이크, 스카이라인, 챌린지 등 체험하는 활동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팀별 자유 시간을 통해 함께 통일부채를 만들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주관한 박해진 경기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정착해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길”이라며 “오늘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남한적응의 어려운 점, 학교생활 등을 솔직하게 터 놓고 이야기 하면서 얻는 것, 느끼는 것이 많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멘토 자문 위원들에게는 “각자 멘토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다른 멘토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 정보도 교환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탈북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자부심, 남한 사회는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나는 체험 즐기며 멘토-멘티 더 가까워져



오전에 진행된 야외활동에서는 먼저 2개 조로 나눠서 로프체험(챌린지)과 4륜 바이크체험을 동시에 진행했다. 아찔한 높이에서 로프를 타고 총 3개의 구간을 건너갔다 오는 로프체험은 참가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팀워크를 증진하는 아웃도어 모험활동이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로프 줄을 의지해 건너기 시작하자 발 밑에서는 ‘잘한다, 잘한다’ 등 칭찬의 응원이 계속 들려왔다. 경현(가명)이와 상훈(가명)이는 어느새 로프에 적응해 줄을 마구 흔들어들었는데, 개구쟁이들이 줄을 흔들 때 곤란한 건 멘토선생님들이다. 심한 진동을 느낀 멘토들은 줄 위에서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장난을 말리기도 했다.



챌린지를 마치고 4륜바이크로 향하는 길, 고 3인 홍선(가명)이는 전혀 무섭지 않았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고 중학생인 동생 효선(가명)이는 “재미 있었다”고 말하며 해맑게 웃었다. 북한에 있을 때 영양공급이 원활치 않아 현재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경일(가명)이는 로프체험도 멋지게 해냈지만 바이크 체험을 훨씬 재미있어 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명이(가명)도 예쁜

원피스에 샌들을 신고 왔지만, 어떤 언니오빠보다 더 야무지게 체험에 참가했다. 선생님과 함께 와서 재미있었다는 말도 전해 왔다.



## 통일부채 만들며 꿈과 진로, 일상 이야기 나눠

오후 순서가 시작되기 전 식사시간을 기다리며 박해진 부의장은 옆자리에 앉은 주성(가명)이와 대화를 나눴다. 주성(가명)이는 외할머니와 삼촌, 부모님과 남한에 왔다. 박해진 부의장은 주성(가명)이를 따라 캠프에 참가한 남한의 '절친(친한 친구)' 찬희에게 주명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생활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유민(가명)이는 멘토자문위원과 부채를 만들면서 "대학교에 가서 또 돈을 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엘리제 멘토와 이규림 멘토는 "유민이 생각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대학을 가서 전문분야를 공부해야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고 유민이는 "대학에 갈거면 응진 세무대에 가고싶다"고 말했다.

6년 전에 북한의 청진에서 남한으로 온 손민(가명) 학생은 "친구들이 많이 다가와 줘서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고 영어 수학 빼고 학업을 따라가는 데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이의 꿈은 외교관과 청진시 시장 2개다. 특히 외교관이 되어 중국을 통해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을 도와 공안에 잡히지 않고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 멘티 자라에 “멘토 선생님 감사해요”

끝으로 멘토링 참여 소감발표가 진행됐다. 정현(가명)이의 멘토인 최만순 자문위원은 “정현이가 처음에는 고개도 잘 못 들었는데 세 번째 만나는 오늘은 지나치리만큼 장난도 많이 친다”며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활기 넘치는 친구가 좋고 앞으로 자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정현이는 오늘 활동이 모두 재미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성(가명)학생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소감을 말하자 이 학생의 멘토인 김인배 자문위원은 “성이가 몸짱 대회에 나가기 위해 몸을 만들고 있다”며 다른 멘토들에게 철이 학생의 ‘훌륭한 바다’를 자랑했다. 다른 멘토들도 ‘잘생겼어요’라며 호응하며 성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주었다.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어리고, 멘토-멘티간 서로 만난 횟수도 많지 않아 아직까지는 멘토-멘티간 대화가 부자연스러운 팀도 있었다. 방학 때 주로 무얼하고 지냈는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군지, 꿈은 무엇인지 등 탐색단계의 멘토링 위주였지만,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질문도 하고 자주 웃거나 속내를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번 캠프를 계기로 민주평통의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이 앞으로 더욱 활발하고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평화통일은 힘들어도  
극복하고 가야 하는 길”

엄홍길 대장의 산, 그리고 통일 이야기



25살 처음 에베레스트산에 도전했다가 3년만인 1988년 처음 등정에 성공한 이래 2007년 8,400m 로체샤르를 등정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좌(공인 14좌+위성봉 2좌)를 완등한 산악인이 된 엄홍길 대장. '불굴의 산악인'으로 불리며 전설이 된 엄홍길 대장은 현재 세계사에 남을 대기록을 겹겹히 내려놓고 히말라야 8,000미터 고산이 아닌 인생의 8,000미터를 다시 오르고 있었다. 바로 나눔의 삶을 통해서다.



## 2년째 15박 16일 DMZ 평화통일대장정에 나선 엄홍길 대장

엄홍길 대장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15박 16일 동안 '2014 DMZ 평화통일대장정'을 직접 주관해 다녀왔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올해 11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고성 통일 전망대를 시작으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까지 휴전선 155마일을 도보로 완주했다. 긴 시간, 먼 거리만큼이나 쉽지 않았을 '평화통일대장정'을 다녀오게 된 이유를 물었다.

“지난해가 6.25 한국전쟁 60주년이었잖아요. 이를 기념해 우리의 미래인 젊은 청년들, 특히 대학생 155명과 함께 DMZ 155마일을 걸으며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 조국의 역사적 교훈을 함께하고, 히말라야 고봉 16좌 등정에서 얻은 도전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평화대장정을 실시했어요. 작년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올해 엄홍길휴먼재단의 국내 대표 사업으로 2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DMZ 평화통일대장정은 참가학생들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일체 무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도보 1km 당 100원씩 3만5,000 원씩을 걷어서 이 돈을 전액 물망초 재단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안보현장 실제로 걸으며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높여

요즘 청소년들이 갇힌 공간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삭막해져가고, 육체적으로는 너무 나약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엄홍길 대장. 공동체생활에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학생들을 자연으로 끌어들이며 체험을 통해 스스로를 이겨내게 하고 싶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도전 정신과 기상, 인내력도 기르면서 자아개발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배려심과 남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DMZ 휴전선 155마일을 완주하는 일은 역사인식을 투철히 하고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안보의식을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엄 대장의 설명이다.



## 힘들어도 극복하고 가야 하는 길이 바로 '평화통일의 길'

여름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대장정 기간, 평화통일대장정은 그 안에 담긴 높은 뜻만큼이나 고통도 매우 컸을 것 같았다.

“산길이 아니라 아스팔트길을 계속 걸으니까 발에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지요. 엄청난 아스팔트 열기에 발이 익어요. 저는 오른쪽 발목에 장애가 있어요. 내가 이런 다리를 가지고도 걷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멀쩡한 두 다리로 걷는 것이니까 이정도 가지고 고통스럽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타일렀어요.”

엄홍길 대장은 안나푸르나에 네 번째 도전하던 중 오른쪽 발목이 180도로 돌아가는 큰 사고를 당해 다리에 쇠핀을 박았다.





DMZ평화통일대장경에서는 150명이나 되는 대부대가 단체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쉬고 싶을 때 제대로 쉬지도 못했지만,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 완주에 성공했다. 엄홍길 대장은 대원들에게 '나를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을,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라'고 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마 가장 큰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도전을 통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 후회와 싸우며 눈물을 흘리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 두 번 다시 겪을 수 없는 인생에 큰 경험이 됐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요."

엄홍길 대장은 '평화통일의 길' 또한 마찬가지로 말한다.

"통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관심 갖고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거나 시행착오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남과 북이 평화적인 합의하에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대장경에 참여한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 히말라야 고봉 16좌 등반, 두렵진 않았나요?

사실 엄홍길 대장을 만나 '통일' 이야기만 듣고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자원봉사차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지 채 사흘이 되지 않아 초췌한 모습의 엄 대장이었지만, 히말라야 등반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났다. 거대한 절벽에서 낙석이 총알처럼 날아다닌다는 히말라야의 겨울, 눈으로 가려진 크레바스들, 등반 과정에서 생과 사의 기로를 수도 없이 만났을 텐데, 두렵진 않았는지, 어떻게 재도전을 거듭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 에베레스트 등정



시사망 등정 ▶

“산에 막 들어섰을 때부터,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시도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어요. 산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눈사태, 낙석, 낙빙 등은 사전에 예고 없이 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단 5미터도 나아갈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겨내야지만 5천, 6천, 7천, 그리고 8천미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얼마만큼 빨리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엄홍길 대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16개를 등정했지만 그 기록 이면에는 절반의 실패가 있었다. 특히 초기 3년간은 두 번 실패 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고, 이후 여섯 번 내리 실패하기도 했다. 엄홍길 대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어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행동에 옮기세요. 그 과정이 항상 본인의 계획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시련과 고통, 실패를 겪습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슬기롭게 이겨내느냐입니다.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좌절의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 신념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 또 다른 도전, 16개의 휴먼스쿨과 남북산악인 평화원정대

16좌 완등을 성공한 뒤 엄홍길 대장은 22년간 자신에게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준 히말라야의 가르침대로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다. 산 아래의 삶을 내려다보며 그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부모의 가난을 이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는 엄 대장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들에게 학교를 설립해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2008년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 엄홍길 1호 학교를 에베레스트 4000m 부근에 지은 이후 매년 1개씩 학교를 세워나갔다. 현재 11개의 학교가 지어졌으며 16개의 학교를 설립할 때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그밖에 엄홍길휴먼재단을 통해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과 동반 중 사망한 산악인 유가족 지원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



▲ 네팔 의료봉사활동

▶ 네팔 휴먼스쿨 준공식

▼ 청소년 희망원대 및 곰두리축구단 활동



엄홍길 대장의 또 다른 목표는 남북한 산악인이 하나 되어 평화원정대를 꾸리는 것이다.

“저는 북한의 금강산에도 가봤고 묘향산 백두산도 가봤어요.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백두대간을 종주해보고 싶습니다. 또 한걸음 더 나가서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남한과 북한 산악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의 평화원정대를 만든 후 레이스에 도전해서 성공하는 것이 저의 또 다른 꿈입니다.”



거슬러 오르자면 천 년하고도 수 백 년을 더 지난 이야기다. 패국의 길로 들어선 옛 나라의 왕은 나라의 이름을 딴 새로운 악기를 만들도록 했다. 민심을 하나로 모아 나라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에 서었다. 의도야 어쨌든 그렇게 하늘과 땅, 천지와 사방, 열두 달의 의미를 모두 담은, '사람과 땅'의 악기가 탄생했으며, 패망한 나라가 허무하게 이름을 지운 지금까지도 연주되고 있다. 바로 우리 악기 가야금이다.

지명만 익숙한 미국 알래스카 주 출신의 조세린 클락(Jocelyn Clark, 45) 교수는 '가야금'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스무 두 살 어린 나이에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국악(國樂)을 사랑하다 보니, 그 나라까지 사랑하게 됐다"는 조세린 교수를 만나, 그녀가 사랑하는 국악과 한국에 대해 들어봤다.



## 우리 전통가락 따라 한국에 왔어요

이제는 능숙한 솜씨로 찻잎을 고르고, 찻잔을 데우는 그녀가 처음 한국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본과 중국 유학을 통해서였다.

"태평양 전쟁 때 참전했던 할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 일본어를 공부했고, 고등학교도 일본에서 졸업했어요. 어려서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오보에 등 악기를 많이 접해서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일본의 '고토'(琴) 라는 전통악기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현악기에 관심이 생겼고, 중국 남경 예술대학에서 쟁(箏)을 배우면서 한국에 비슷한 악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거죠."





마침 90년 대 초 국립국악원에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서 한국 땅을 처음 밟게 됐다는 것.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알래스카의 주요 무역국인 일본과 달리 쉽게 관련 정보를 구할 수도 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였다. 일본과 중국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아시아 문화에 익숙하다는 생각했지만 한국 생활은 시작부터 난관이었다.



## 정말 '코리아타임'이 있었던 그 때를 아시나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밤에 어디가지도 못했어요. ‘코리아 타임’ 알죠? 문화가 아니라 당시엔 진짜 교통편이 원활치 않았던 데다 지금처럼 휴대전화도 없었으니까, 약속 잡기가 너무 어려웠고 너도나도 늦는 게 다 반사였어요.”

공중전화박스마다 길게 줄을 서는 일은 일상이었고, 5분 이상 통화하면 뒷사람이 부스를 두들겨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 뿐인가. 당시 만해도 유학생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집도 당시 서울대 국악과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박칼린 음악감독의 도움으로 겨우 구할 수 있었던단다.



## 다름의 매력, 국악(國樂) 그리고 가야금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한국을 오게 된 이유인 가야금의 소리나 연주방식 역시 그녀의 생각과 너무 달랐던 것.

“생각해보세요. 전 고토도 연주하고, 쟁도 알잖아요? 그러니 가야금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달랐어요. 소리부터 고토나 쟁은 밝아요, 그런데 가야금은 무겁고 좀 어둡죠. 또 다른 두 악기는 앞에서 낸 음과 뒤에서 낸 음의 화음을 맞춰가며 연주하는데 비해 가야금은 앞에서 낸 소리를 눌러 지우죠.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제가 기대했던 음악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그리 멀지 않아, 처음의 실망했던 바로 그 부분들이 그녀가 가야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음악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매력 있고요. 처음에 한국 와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식 시간관념이었는데요. 선생님 중 한 분이 음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국의 박자는 달라요. 보통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리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음악은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도 다른 박자를 타요. 심지어 음악이 끝나는 지점까지 다르죠.”



## 정 있는 외국인의 의리 있는 한국생활

각각 다른 템포, 다른 박자, 다른 음들이 섞여 만들어내는 음악. 생각해 보면 한국전통음악은 한국문화와 참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던 부분들까지 그냥 정들고 사랑하게 되버렸단다.



“내가 원래 정(情)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님 한국 정이 익숙해진 건지 어쨌든 나도 정 많은 외국인이 된 셈이죠.”

그래서다. 한국을 ‘참 고마운 나라’라고 표현하는 조세린 교수가 한국을 떠나지 못한 이유 말이다. “의리가 있지 어떻게 떠나요? 국악을 버리면, 한국을 버리는 게 되고, 내 스승들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에서 ‘지지지지 주지주지, 세린노경기 : 가야금 병창의 역사·연주·연주’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한국과 미국을 부지런히 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단다.



## 한국사람들의 자신감 회복 위해, 통일 이뤄야

그럼 정(情)과 의리를 이해하고 한(恨)에 대해 말하는 조세린 교수가 생각하는 남북통일은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 중국 연변에 간 적이 있어요. 음악에 관심이 많다보니 가서 조선족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의 음악을 들을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달라요. 한국의 음악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음악도 다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그런 문화적인 부분의 절충과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통일은 꼭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 전후 생길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조세린 교수. 그 이유는 바로 한국 사람들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 말이죠. 저는 남북이 통일이 된 후 땅이 더 커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불안감이 해소되면 사람들이 더 당당해 질 거라 생각해요.”



## 한국사람이 한국음악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야금을 만난 지 벌써 20여 년. 6여 년 전부터는 다시 정식으로 가야금산조와 병창 그리고 신곡까지 공부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다 달라, 전주며, 분당이며, 서울이며 열심히 오가야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단다. 진심을 다해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고, 가르침에 보답하려는 제자가 함께 하는 수업인데 좋지 않을 리 있을까. 다만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기악독주곡)와 달리 병창(창(唱)에 가야금 연주가 곁든 연주형태)은 한국식 발음이 어려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여름 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 오르며, 가야금을 연주한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외국인 최초의 가야금산조 레코딩이다. 우선은 스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연주를 선보일 욕심에 연습에 매진 한 후 차차 작곡가들과 협연이나 현대음악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음악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저에게 고토를 가르쳐 주신 분이 사와이 카즈에(沢井一恵)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 분이 왜 미국아이들에게 고토를 가르치셨냐면 일본젊은이들이 고토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악이나 가야금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저도 현대음악 좋아해요. 그런데 뿌리라고 하잖아요? 시대가 변해도 뿌리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이지만 저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가야금이나 한국의 소리를 조금이나마 더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 전성용



© Nahee Kim



© Joyce Tang



탈북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 '하나원에서 사회로 나가면 며칠은 반드시 운다'고. A씨는 '남들 다 겪는 거니까'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정말 딱 3일 만에 화장실에 들어가 '온밤'을 목 놓아 울었다고 한다. 4년여가 지난 지금 A씨는 현재 명문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다. 이번호에서는 '신중남' A씨의 남한사회 적응기와 함께 북한의 추석나기 풍경을 함께 전해본다.

## 물어볼 수 없었어요! 결국 남은 건 딱 2천원

2010년 한국에 온 A씨는 하나원에서 나올 때 300만 원의 생활비와 10만 원의 훈련수당을 받았지만, 브로커비용으로 300만 원을 보낸 뒤 10만 원만 가지고 새로운 거주지에 정착했다. 겨우 1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더니 "당시에는 돈의 가치를 전혀 몰라서 10만 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몰랐다"고 한다. 운동화가 필요했던 A씨는 사회에 나온 바로 다음날 신발가게에 갔다.

"그땐 북한사투리를 그대로 썼을 때니까, 아예 말을 안했거든요. 말없이 신발 한 켤레를 골라 계산대에 올려놨지요." 그 운동화의 가격은 9만8,000원이었다.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는 A씨는 급당황했지만 운동화를 구입했다고 한다. "지금 같으면 사기 전에 미리 물어보기도 하고 '어? 비싸네?' 하면서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놨을 텐데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가져다놨으니까 그냥 사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A씨의 수중에 남은 돈은 딱 2,000원이 되었다. 돈은 없어도 주민센터 등에서 쌀과 라면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굶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으니 바로 담배다.

"담배가 2,500원인가 하더라고요. 고향(북한)에서는 대담배(가치담배)가 있었고 마라초(말아서 피우는 담배)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긴 없더라고요."



홀홀단신으로 남한에 넘어와 주머니 속엔 달랑 2,000 원뿐인 상황. A씨는 담배 구경도 못한 채,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3일을 보낸 뒤 그날 밤 화장실로 들어가 '온밤'을 울었다. 이른날 눈을 떴을 땐, 밖에 나가서 누구든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하나센터에서 찾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반갑든지요. 울어서 통통 부은 얼굴로 하나센터에 가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 울자울자 하는 아주머니, 돈 찾아준 사연은?

이후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하게 된 A씨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다.

“북한말을 쓰지 않으려고 아예 말을 안했어요. 하지만 마트에서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사려는 제품을 찾지 못할 때요.”

A씨가 필요한 건 바로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었다. 북한에서는 물을 담는 그릇을 '소래'라고 한다고 한다.



“제가 소래 어디있냐고 물었더니 점원이 못 알아 듣더라고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대뜸 조선족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저는 ‘아니다! 나 한국사람이다’하면서 보여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주고 강원도 사람이라고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 점원이 강원도 말투가 아니라고 말하자, 당황한 A씨는 물건을 사지도 않고 그냥 가게를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 뒤에 말투 먼저 바꿔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입에 물고 책을 읽거나 TV, 인터넷 등을 보면서 따라하니 좋아지더라고요.”

A씨는 지금도 '세계'라는 말보다는 북한말인 '가루비누'라는 말이 익숙하다고 한다. 슈퍼마켓에서 들어가기 전 '세계'라는 말을 머릿속에 수없이 연습해왔지만 '슈퍼 주세요'라는 엉뚱한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남한정착 4년차를 맞은 A씨는 이제 북한사투리를 잘 쓰지 않는다. 억양도 거의 남한 사람과 유사하다. 그리고 하나원에서 사회로 갓 나온 탈북 동료를 돕는 일도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 아주머니가 우리 동네에 사시니까 도와드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어느 날 아기를 등에 업은 그 아주머니가 길에서 거의 울자울자 하고(울상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었죠.”

아주머니는 ‘방금 은행에서 70만 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돈은 안 나오고 이런 종잇조각이 나왔다고 했다. 게다가 통장 정리를 해보니 정말 그 70만원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



“웃음이 나왔어요. 아, 괜찮다고... 이것도 돈인데 좀 다를 뿐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은행에 가서 다시 수표 넣고 현금을 뽑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A씨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황당한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모를 것'이라며 빙긋 웃었다.

## 남한에선 추석 때 명절 느낌이 안 나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북한의 추석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오래전 남한에도 있었던 그런 경겨운 한가위 풍경이 저절로 떠오른다. 북한에서는 추석 당일 새벽, 음식 장만으로 분주하다. 명절 휴일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남한처럼 전날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는 것. 명절에는 가족 전체가 새벽에 일어나서 떡도 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한다. 그리고 추석날 아침에는 동네방네 음식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남한에서는 명절이 돼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저쪽(북한)에서는 명절 며칠 전부터 벌써 들떠있거든요. 떡 같은 것도 항상 먹을 수는 있는 음식은 아니니까요. 또 '그 분(김일성)'이 말씀하신 '이 밥에 고깃국'도 먹을 수 있고요. 아이들은 명절 한 달 전부터 손으로 꼽아요. 30일 지나면 추석, 29일 지나면 추석... 이렇게요."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의 추석풍경은 조금 다른데, 도시의 경우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공원 같은 곳에서 팽과리 소리 요란한 농악무를 구경하기도 하고, 실내에서는 윷놀이와 장기, 카드놀이 등을 한다. 시골에서는 추석날 밤 동네 청년들이 기타 등 악기를 가지고 한 집에 모여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밤새서 놀곤 한다고.

"물론 낮 시간은 운동대회를 해요. 북한에서 중요한 날에는 무조건 대회를 하거든요. 미니올림픽같은 건데, 팀을 나눠서 배구, 농구, 축구 같은 것도 하고 공연도 해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돼지고기 얼마, 돈 얼마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해요."

성인이 되기 전 남한으로 건너온 뒤 수녀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냈다는 B씨는 명절 때, 무연고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 북한식 카드놀이를 즐겨왔다고 한다.

"명절 때면 오히려 수녀님이 카드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배우시고, 함께 모여 밤 새도록 놀아요. 북한의 카드놀이는 서양식과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은 명절이 되면 더욱 고향이 그리다. 비록 고향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명절날만큼은 절대 혼자서 보내지 말고 남한 사람들과 혹은 동료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우러져 즐기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보도록 하자.

<글: 기자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여론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방학캠프



▲ 충남지역회의



▲ 광주 서구협의회



▲ 광주지역회의

충남 지역회의는 7월 29~30일 1박2일동안 아산온천호텔 및 아산스파비스에서 멘토 38명, 멘티 35명과 함께 '멘토-멘티 결연식 및 여름방학캠프'를 열었다. 광주 서구협의회는 8월 13~14일까지 1박2일간 멘티, 멘토, 또래친구, 그 가족들과 함께 '여름방학 캠프'를 다녀왔다. 광주 지역회의는 8월 5~6일 1박2일간 전남 나주중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멘토 18명, 멘티 9명, 또래친구, 가족 등과 함께 방학캠프를 개최했다.



대구 지역회의는 8월 8~9일까지 1박2일간 경북 청송 주왕산에서 멘토 자문위원, 멘티, 멘티가족, 또래친구, 청년위원 등 30여 명과 함께 방학캠프를 열었으며, 울산 지역회의는 8월 11일 경주에서 멘토 자문위원, 멘티, 멘티가족 등 80명과 함께 방학캠프를 실시했다.



▲ 대구지역회의



▲ 울산지역회의

경기 지역회의는 8월 13일 한울유스 센터에서 멘토 자문위원, 멘티, 멘티가족과 또래친구, 청년위원 등 54명과 함께 방학 캠프를 열었으며 경기 고양시협의회는 8월 12일 일산경찰서와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양시 관내 북한이탈청소년 과 어깨동무하기 멘토링 결연식을 체결 했다.



▲ 경기 고양시협의회



▲ 경기지역회의

### 광복절 경축 행사



▲ 부산 북구협의회

▶ 경북 경산시협의회



부산 북구협의회는 8월 4일부터 15일까지 동안 관내 4곳에 태극기 게양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경북 경산시협의회는 8월 11일 협의회장 및 임원, 경찰서 관계자, 북한이탈주민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태극기 100세트를 전달했다. 경기 과천시협의회는 8월 14일 과천시농협앞에서 태극기 나누주기 행사를 열었으며, 제주 제주시협의회는 8월 15일 '하라에서 백두까지 국민대통합 평화통일' 기원 메시지 운동 일환으로, 민족의 영산 한라산을 답사했다.



▲ 경기 과천시협의회

### 통일시대시민교실, 통일특강 등



▲ 경북 성주군협의회



▲ 전남 해남군협의회



▲ 부산 남구협의회



경북 성주군협의회는 7월 30일 경주코모도호텔에서 부산 기장군협의회와 자매교류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통일특강을 열었다. 전남 해남군협의회는 7월 3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장, 해남시민들과 함께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같은 날, 부산 남구협의회는 옹호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 150여 명과 함께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 대구 남구협의회



▲ 서울 송파구협의회



▲ 경기 시흥시협의회

대구 남구협의회는 8월 7일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에서 전교생과 교사 등 1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송파구협의회는 8월 8일 자문위원 40명과 함께 판문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안보교육을 다녀왔다. 경기 시흥시협의회는 8월 9일 토요일 평화누리 및 파주DMZ에서 대학생·청년 43명과 함께 '시흥시 대학생·청년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열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는 8월 12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새마을회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경기 여주시협의회 ▶

그리고...



▲ 강원 태백시협의회

▼ 경북 봉화군협의회



강원 태백시협의회는 8월 1일 리조트 스키하우스에서 태백 시민 1,500여 명과 함께 '달북 예술인들과 태백 시민이 함께하는 통일음악회'를 열었으며, 같은 날 경북 봉화군협의회는 제16회 봉화어촌축제행사에서 안전요원 봉사활동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일 퀴즈를 실시했다.



▲ 서울 구로구협의회



▲ 서울 양천구협의회



▲ 경남 남해군협의회

서울 구로구협의회는 8월 15일 서울 오류남초등학교에서 자문위원, 사무처 및 서울지역 청년위원, 북한이탈주민 축구단(FC 서울), 구청 관계자 등 110여 명과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양천구협의회 8월 18일 대한적십자사 양천·강서봉사관에서 북한이탈 어르신들에게 심계탕을 제공해드렸다. 같은날, 경남 남해군협의회는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관내 3개 읍면 불우이웃 가정 5세대를 방문해, 전통시장 상품권 1백만 원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 중국 선양협의회



지난 7월 25~26일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자문위원 및 동반가족, 현지교민 등 67명, 선양총영사관 교민담당 최종석 영사가 참가한 가운데 통일강연회와 항일역사탐방 행사를 열었다.

### 중국 베이징협의회



8월 1일 베이징 소재 팡헝홀리데이인호텔에서 자문위원들과 교민, 유학생, 특파원 및 공관원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 미국 시카고협의회

8월 6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북한 인권 사진전을 개최했다. 한국전 포로협회 연례모임에 참석한 40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은 참관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캐나다 토론토·밴쿠버협의회



6월 9~1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해외지역회의를 마친 토론토 협의회, 밴쿠버협의회는 동해안 안보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오랜만에 조국을 방문한 자문위원들은 동해안 지역의 전망대와 전방부대를 방문, 통일의 염원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를 실시했다.



## '통일대박' 실현 위한 '국민 운동(movement)' 필요 민주평통, 사회각계 원로 초청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8월 26일 오전 11시 서울클럽에서 사회각계 원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북정책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적 통일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사회각계 원로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건의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통일·대북정책 설명에 나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정부는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환경, 민생, 문화 등의 통로를 통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분야부터 하나씩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의견수렴 회의에서는 원로들이 평소의 생각과 주관을 아낌없이 제시했다. 특히 통일외교 및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적 단합과 통일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소통과 통합,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통일준비 내실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 박찬봉 사무처장

▲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아울러 '통일대박'은 '통일 운동(movement)'이 전개되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과, 통일문제는 기초적 문제부터 하나씩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밖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민족통일성 회복 강구, 아시안게임에서의 평화통일 의지 천명, 청년 및 청소년층 통일교육 강화, 민주평통 기능 강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

이날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통일은 정부 각 부처가 역할과 준비를 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이를 수 있는 과제"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통준위, 통일부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평통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 수석부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의지와 소망"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듯이 통일의 길에도 선배 원로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원로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70억 세계인에게 통일한국의 비전 알릴 제1기 청년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발대식 개최

*"어학연수, 배낭여행, 자원봉사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청년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1천만 명의 외국인에게 통일 한국의 미래를 알릴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300명의 1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의 탄생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민주평통은 반크와 함께 통일 한국의 비전을 알려나갈 청소년·청년 1만 명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 통일외교대사 발대식에 고등학생·대학생 300여 명 참석



해외에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널리 알릴 '제1기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발대식이 8월 5일(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렸다.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함께 손잡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을 전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민간홍보대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반크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300여 명은 이날 발대식에서 통일관련 전문 강의와 통일한국의 미래를 알리는 방법 등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했으며,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이하 통일외교대사) 역할을 시작했다. 통일외교대사로 위촉된 학생들은 어학연수·배낭여행·유학 등의 기회를 활용하거나 한국 방문 외국관광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 박찬봉 사무처장 '통일외교대사' 참가 학생 격려

개회식에 이어 경과보고를 마친 박기태 반크 단장은 “작은 펜팔사이트에서 시작해 70억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NGO로 성장한 반크와 통일을 대표하는 민주평통이 여러분들에게 세계 최초로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 한국을 만들어나갈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자격을 드리는 것”이라며 “나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멋지게 함께 뛰어보자”고 말했다.

민주평통 박찬봉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진솔한 화법과 센스 있는 유머로 대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사무처장은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통일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한 ‘통일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는 김구 선생의 말을 소개하며 잠시 목이 메었을 때는 일순 숙연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지만 ‘두근두근’이라는 통일외교대사의 슬로건이 가장 맘에 든다는 말에는 학생 모두가 웃음을 터트렸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우리 민족에게 개혁의 DNA가 있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고, 민주평통에서도 해외 115개국 3천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글로벌이 낯선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글로벌세계를 향해 뛰어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



반크 박기태 단장은 ‘통일 공공외교대사의 도전, 열정!’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특강에서 반크가 왜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게 됐는지, 청소년통일외교대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작은 펜팔사이트에서 시작해 15년간 한국인 10만 명, 외국인 2만 명의 회원을 둔 최대 규모의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으로 성장한 반크는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 뿐 아니라 ‘세계지도 동해 병기’ 등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박기태 단장은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통일외교대사들은 세계인들이 북한과 전쟁의 위협에 대해 걱정할 때 ‘통일 지도’를 펼쳐서 보여주고, 세계 각국의 학교에 이 지도를 붙여, 통일이 비단 한국만의 행복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 박기태 반크 단장



특강 말미에 '두근두근 코리아'(Heart Beating Korea)란 제목의 영문 세계지도를 펼쳐보이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박기태 단장은 "통일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설레는 꿈을 담아서 만든 지도"라며 "통일되면 귀찮아요,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 지도를 통해 통일의 비전을 설명해주고, 세계인의 교실에 이 지도를 전파하는데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찬봉 사무처장이 "두근두근!"을 선창했고, 학생들은 "통일!"을 외치며 지도를 활짝 펼쳐 보였다.



## 북한·통일문제 특강 통해 통일공공외교대사에 한걸음 더 가까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두 번째 특강으로 서강대 김영수 교수의 한반도 통일의 민족사적 의의와 청년의 역할 강의를 진행했다. 김영수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들려주며 "마음의 통일이 곧 사람의 통일이기 때문에 남북한 사람들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일을 위해 "북한주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또한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는 주변국의 외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글로벌통일 공공외교 대사의 자질은 애국심에서 시작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영수 교수



▲이광백 남북언론연구회 대표

끝으로 "글로벌통일 공공외교 대사의 자질은 애국심에서 시작된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광백 남북언론연구회 대표는 ‘글로벌리더 통일한국의 희망은 청년!’을 주제로 세 번째 특강을 했다.

## 통일외교대사의 역할과 실천 교육, 그리고 꿈씨앗 비전심기

통일외교대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길러줄 세 가지 특강이 끝나자, 통일외교대사의 역할과 실천방법을 알려줄 교육이 진행됐다. 김보경 반크 연구원과 이경애 반크 연구원은 한국 바로 알리기와 통일한국을 알리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명했으며 목다혜 반크 청년리더는 통일세계지도 제작 사례를 소개했다.



발대식 마지막 순서는 종이 뒷면에 통일에 대한 꿈 사연을 적은 뒤, 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였다. 시작을 알리는 구호와 함께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히 비행기를 날렸다. 저마다의 사연과 통일활동을 위한 각오, 포부가 담긴 형형색색의 통일꿈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멋진 광경이 연출됐다.



**글로벌통일공공외교대사 활동 열심히 할래요!**





▲김새샘(삼육대학교)



▲박창준(돌마고등학교)



▲박주연·박신명(광주경신여고)

김새샘(삼육대학교) = 전공은 미술인데, 어렸을 때부터 북한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인사동과 같은 문화거리에 가면 외국인친구들을 만나는데, 단장님처럼 이들에게 통일한국의 장점을 알리고 분단된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해요. '통일'하면 아픔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단란한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창준(돌마고등학교) = 평소 역사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지원하게 됐어요. 역사교사가 꿈이고요. 학교에서 진행됐던 통일교육 외에 교회에서 아는 분을 통해 실제 북한이탈주민을 만났는데, 북한 인권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소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통일을 바랬는데, 지금은 한민족으로서 북한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주연·박신명(광주경신여고) = 학교에서 반크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김영수 교수님의 강의를 가장 인상 깊게 들었어요. '통일'은 교과서 안에서만 접했는데 막상 강의를 들으니 통일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저의 꿈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것인데, 남한과 북한의 문화, 정치적 차이를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해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주연).



▲이준승(미국 뉴욕주립대)

▲우상호(인하대학교)



▲방은아(문산제일고, 왼쪽)

이준승(미국 뉴욕주립대) = 중학교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오늘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외국 교과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외국의 주변 친구들에게라도 진실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또 미국의 경우 '북한은 나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우상호(인하대학교) = 통일은 단순히 합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강의였어요. 전공이 외교분야기 때문에 방학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통일외교대사 활동을 하면서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요.

방은아(문산제일고) = 반크에서 글로벌역사외교대사를 했는데, 통일외교대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평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오늘은 중학생인 사촌동생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열심히 할게요~



## 100인 통일 인재들의 진검 승부!

### 제4회 역사·통일골든벨 개최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전국 결선대회인 'KBS-1TV 도전! 역사·통일골든벨' 녹화가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고등학교 체육관(종로구 계동 소재)에서 국내·외 지역대회 입상 학생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를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 17개 도시에서 본선 진출을 위한 치열한 예선전이 펼쳐졌으며, 448개 고등학교에서 총 26만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특히 유럽, 미국, 중국, 베트남 해외거주 학생 10명과 북한이탈청소년들도 참가했다.



대망의 골든벨의 첫 번째 문제는 동요 '우리의 소원'에 들어갈 가사를 맞추는 문제였다. '겨레'가 정답이었지만 의외로 강산, 형제, 동족, 패자부활전에서만나요 등의 오답이 있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무려 37명이 탈락해 50번 골든벨 문제까지 갈 수 있을 지 불안한 느낌을 주는 출발이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탈북 고등학생은 한겨레고등학교 김신혁, 이신주 학생으로 두 학생 모두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함경북도 청진에 살다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태국을 거쳐 2007년 한국에 왔다는 신혁이는 "남한의 경우 정보통신이 발달해 세계 여러나라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어 좋지만 이웃과 단절돼 있어 쓸쓸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친구, 선생님께 작별인사를 하지 못하고 남한으로 와서 가슴 아프다며 북한에서 부르던 '스승의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다.



녹화장 양쪽으로 배치된 관중석에서는 열띤 응원전이 벌어졌다. '나는 역사가 되고, 역사는 우리가 된다', '17년 기다린 오늘 울린다', '너의 종소리가 들려' '골든벨 울리우리', '골든벨 울려볼게 느낌 아니까' 등 다양한 응원 문구가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재지와 이이와 이황을 묻는 문제에서 몇몇 학생이 탈락했고 4번에서 김구 선생 관련 문제가 출제됐다.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오, 다음 소원도 우리나라 독립이다...' 이 문제에서는 다행히 아무도 답을 틀린 학생이 없었다. 한편, 중국 칭다오 청운학교에 재학중인 이상현 학생은 정답을 계속 한자로 써서 주목받았다. 상현이는 패자부활전 이전 최후의 9인 안에 들어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본 게임에서는 중도 탈락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걸그룹 AOA의 '좋아하는 누나'와 악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비행기 타고 온 보람이 있다'고 말하기도.

10번 문제까지 진행된 이후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걸 그룹 AOA가 입장한 것. AOA의 멤버는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해보고 싶은 통일골든벨에 전 세계에서 26만 명과의 경쟁을 뚫고 온 100명을 응원한다고 말한 뒤 문제를 출제했다.



부산 대연고 이승윤 학생의 '걸스데이춤'은 긴장된 학생들을 활짝 웃게 했다. 태연한 얼굴로 '아무 춤이나 다 출 수 있고, 춤을 잘추려면 타고 가야된다'고 말하던 승윤이는 놀라운 댄스 실력을 선보였다. 즉석에서 AOA 노래의 안무를 요청받기도 훌륭하게 소화해 AOA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생각보다 빨리 패자부활전이 시작됐다. '큰집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등글남작한 난쟁이 옷을 입은 남학생이 제한 시간 1분 30초 동안 풍선을 옮기면 두 여학생이 터뜨리는 게임으로, 풍선 개수에 따라 부활할 학생들의 숫자가 결정되는 게임이었다. 경충경충 뛰면서 열심히 풍선을 나르는 남학생들, 몸을 사리지 않은(?) 여학생들의 노력에 힘입어 전원이 부활할 수 있었다.



미국 휴스턴에서 온 오헤빈 학생은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2년 단위로 여러나라를 돌아다녔지만 한국 역사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통일골든벨 예선전을 준비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시애틀에서 유니스정은 DMZ를 가보고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됐다며 분단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부천고 정용현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출연해 '의리의 포옹'을 했고, 광주 송일고 김예린 학생이 대금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기도 했다.



패자부활전에서 부활해 다시 대회가 진행되지 1시간여, 28번 문제로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해의 숫자를 더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총 6명의 학생이 탈락했는데 탈락자에 포함된 목포 예인여고 박희란 학생이 할 말이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 희란이는 교장선생님께 “저 여기까지 살아남았는데요. 전교생, 고3친구들에게 치킨 싸주셨으면 좋겠다”며 ‘거절할 수 없는(?)’ 깜짝 부탁을 했다.

이어 34번 고려 의학지식 서적인 ‘향약구급방’을 묻는 질문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베트남 호치민의 이용성 학생이 고배를 마셨다. 대신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의 영상편지가 상영됐고 용성이는 ‘너희들이 내 친구인게 자랑스러워 고마워’라며 아쉬움을 달랬다.



6명만이 남은 상황, 최후의 2인은 의외로 쉽게 결정됐다. 41번 문제 ‘그날이오면’ 시의 작자를 묻는 질문에서 4명이 한용운을, 2명이 심훈을 써냈다. ‘26만분의 1의 사나이’가 되겠다는 청주운호고 2학년 진희성 학생과 ‘10년동안 봐온 골든벨 이제는 내가 올린다’고 말한 군포 수리고 3학년 오소연 학생이었다.

하지만 최후의 1인 역시 43번에서 일찍 판가름이 났다. 일제강점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문화재를 지켜낸 사람, 즉 간송 전형필이 정답인 문제에서 진희성 학생이 탈락한 것. 하지만 희성이는 44번 ‘글로벌코리아 문제’를 오소연 학생이 맞추면서 해외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게 됐다(오소연 학생은 3주간 하와이 여학연수).



46번 문제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명지대 교수)이 출제했다. 유 교수는 "역사는 문화유산과 함께 기억 될 때 명확한 이미지를 갖는다"며 "역사에 대한 꿈을 키우는 친구들은 역사를 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공부 방법을 개발해보라"고 조언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정답인 문제를 오소연 학생은 위풍당당하게 맞췄다.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였는데도 오소연 학생은 48번까지 내리 문제를 맞췄고 49번 문제에서는 친구들의 힌트 찬스를 써서 마침내 대망의 골든벨에 도전하게 됐다.

마지막 문제에 이르러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단상에 섰다. 마지막 문제에 이르러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단상에 섰다. 문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로 평가받는 책이자, 구한말 미국인 선교사 험버트가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지식과 문화 등을 간추려 한글로 적은 책의 이름을 묻는 문제였다. 정답은 사민필지였으나 오소연 학생은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어냈다. 이날 비록 오소연 학생이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맞추진 못했지만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여러분 모두에게는 앞으로도 언제든 무한도전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말한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써낸 오소연 학생의 답이 정답이라며 격려해주었다.





행정공무원이 꿈이라는 오소연 학생은 수상소감에서 역사·통일에 관심이 많은 학생답게 첫 월급을 받으면 '자치통감' 전권을 사고 싶다며 "역사교육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친구들도 흥미를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부경고 임소민 학생은 "우리나라가 분단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역사관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다"며 "통일이 되면 역사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선전을 지켜보던 남양고 박세희 선생님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지만 통일관련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일, 역사의를 많이 함양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 '북녘친구에게 보내는 초등학생 편지쓰기대회' 시상식 개최



*"...솔직히 말하면 난 '북한'을 아주 미워했어. 5학년 때 봉사활동으로 가게 된 대전 현충원에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어. 그 영화의 끝 장면엔 남편을 잃은 여자 배우가 소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엄마의 모습이었던 거야..."*

### 전국 700개 초등학교에서 1만 명 가까이 응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8월 19일(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대강당에서 '북녘친구에게 보내는 초등학생 편지쓰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통일미래세대육성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초등학생 편지쓰기대회'는 민주평통 운영위원회를 통해 올해 새롭게 심의의결된 사업으로, 울산 지역회의(부의장 : 정영자)에서 주최했다.

사업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는 전국 700개 초등학교에서 9,350명의 초등학생이 편지를 응모해 높은 참여열기를 보였다. 민주평통은 1만여 편에 가까운 응모작 중 1차 예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부 작품 각 150편씩 총 300편을 선정한 후, 본선 심사를 거쳐 대상(대통령상) 1편, 금상(고학년부 교육부장관상 / 저학년부 통일부장관상) 2편, 은상(이하 사무처장상) 10편, 동상 20편, 장려상 30편 등 최종 63편을 선정했다.



참석 내빈들 ▲▶



시상식에는 수상학생 63명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부산·대전·강원·전남·대구·광주·울산·경기·충북·전북·경북·미주지역 부의장, 기획법제·사회복지분과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함께 참여해 수상 학생들을 축하해주었다. 시상식은 경과보고와 심사평, 상장 및 부상 수여, 현경대수석부의장 축사, 우수작품 3편(대상/금상)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 현경대 수석부의장 “북한친구들 굶주리지 않으려면 통일 필요”



▲ 현경대 수석부의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북한 친구들을 상상하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생들이 꿈과 상상,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수상자 전원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북한 땅에 살고 있는 2,500만 주민들 모두 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도 남한과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친구들이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자유 없이 핍박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초등학생 여러분들의 통일을 향한 꿈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온국민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힘을 합쳐서 노

력하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규 심사위원(민백초등학교 교사)은 심사평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편지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깜짝 놀랐다”며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기준에 대해 초등학생답게, 솔직하게 편지를 쓴 학생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줬다며 “편지를 쓸 때는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초등학생 어린이답게 내 마음을 또래 친구에게 솔직하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이순규 심사위원(민백초등학교 교사)

## 연평해전 유가족 자녀 조시은 학생 대상 수상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은 대전복수초등학교 6학년 조시은 학생이 수상했으며 서울신봉초등학교 6학년 이유민 학생과 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 2학년 신소운 학생이 각각 고학년부, 저학년부 금상을 수상했다(대상 및 금상 수상작 보러가기). 또한 고학년부 은상은 박시윤(한밭초 4), 경유빈(광양용강초 4), 조윤희(서울월곡초 5), 이한결(서울연은초 6), 장빈아(풍각초 6) 학생이, 저학년부 은상은 우주혁(동화초 1), 홍서연(풍무초 2), 조은진(모전초 2), 김새봄(서울천호초 3), 전민경(삼척중앙초 3)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 금상 이유민 학생



▼ 금상 신소운 학생





우수작품낭독 시간, 대상을 수상한 조시은 학생이 편지를 낭독했다. 5학년 때 봉사활동으로 현충원에 갔다가 '연평해전' 영화를 보고, 12년 전 아빠를 잃고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본 뒤 '북한이 하늘만큼 땅만큼 싫었다'고 말한 시은이의 사연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수업을 통해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이 가족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이 되길 바란다는 시은이의 편지내용에 큰 박수가 쏟아졌다.



## “무지개 타고 날아가 북한친구 만나고 싶어요”

금상을 수상한 신소운 학생과 이유민 학생 작품에는 초등학생다운 풋풋함이 가득했다. 소운이는 6.25전쟁 이야기, 포로수용소와 현충원에 다녀온 이야기로 말을 건네며, 북한에도 이런 유적지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자신의 편지에 대해 답장도 받고 싶다는 무지개를 타고 날아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유민이는 “같은 민족인데 북한에 갈 수 없고, 너희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다”며 “아름다운 금강산과 고구려, 고려 선조들이 남긴 용맹한 기상이 깃든 유적과 유물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너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고 싶다”며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한반도 땅의 모든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대상 조시은 학생



▲ 은상 조은진 학생



▲ 동상 서현성 학생



오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시은이는 “대상을 받게 돼 기분이 좋다”며 “통일이 빨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사가 꿈이라는 시은이는 오늘 받은 상금을 모두 엄마에게 드릴 거라며 활짝 웃었다. 은상을 수상한 경북 문경 모전초등학교 2학년 은진이는 “통일 되면 서울에서 경복궁 구경을 시켜주고 싶고 나중에 가수가 되면 북한에서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상을 수상한 경기 수원 황곡초등학교 1학년 현성이는 “신난다”며 “북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며 해맑은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나라 최전방을 이리저리 다니며 제가 보았던 것은 등허리가 찢린 한반도의 아픔, 항시 전쟁의 위험에 대비해 수고하시는 국군장병들의 땀, 그리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제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벅쳐린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3박 4일간의 알찬 일정은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다소간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날 평화통일염원 캠프파이어의 감동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병분들과 탐험대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커다란 한 원을 이루었던 그 순간은 마치 남북한 한민족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여름 학생 후기 중 >



2014 민주평통 통일기원 '제1차 국토탐험대'가 8월 20일(수)~23일(토)까지 3박 4일간 서울지역 청년위원회 주최로 개최됐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자원한 대학생과 탈북대학생, 다문화학생 등 79명이 참가했으며, 김포, 임진각, 철원, 연천 등 분단된 국토의 현장을 누비며 트래킹, 래프팅, 견학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e-행복한통일 취재팀은 민주평통 국토탐험대 일정 중 3일 차에 학생들과 동행했다. 이날은 제2땅굴, 월정리역, 노동당사 등 통일-안보견학지 및 전망대 관람과 입소체험, 장병과 함께하는 통일 골든벨, 캠프파이어 등의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

 **AM 8:30** 전쟁의 상흔이 묻어있는 월정리역, 노동당사 등 관람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식사를 마친 뒤 집결지로 향한 국토탐험대원들. 지난 2일간의 피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고 씩씩했다. 이날은 통일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아리랑 TV 취재진도 함께 동행했다. 대원들은 제2땅굴과 월정리역, 노동당사 등 이날 방문할 역사안보 유적지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였다. 제2땅굴은 특히 우리나라 최북단의 땅굴이자, 전방 1.2km 지점에 북한군의 GP가 위치해 있을 정도로 군사적 중요성이 높은 곳이다. 최석원 학생은 군대를 다녀왔지만 땅굴은 영상자로 등을 통해서만 봤을 뿐 직접 들어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월정리역과 노동당사를 둘러보며 아직도 남아있는 으스스한 포탄의 흔적, 피격의 상흔을 보며 평소 무심했던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다.



**느낌한마디 : 김현성(펜실베니아주립대 / 1조 조장)**

장경태 단장님과 친분이 있어 기획단계에서부터 스태프로 참여했어요. 인원 구성도 좋고 참여 열기도 좋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다보니 해외 상황이나 환율 등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통일이 되면 국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강해지는 등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M 13:00 5사단 전차대대 방문 장갑차 시승 & 사격 체험**

5사단 전차대대에서는 K1장갑차 등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각종 무기, 화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장갑차에 탑승하거나 장갑차에 장착된 기관총도 쏠 수 있었다. 장갑차에 올라선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 쏘는 공포탄 소리에 귀를 막은채 약간 겁을 먹기도 했지만 막상 자신의 차례가 되자 마치 군인이 된 듯 능름한 자세로 사격체험을 했다. 이어 열쇠전망대로 이동해 전망대에 올랐다. 비록 짙은 안개로 DMZ 안쪽의 구역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북한 땅이 매우 가까이 있음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었다.



### 느낌한마디 : 강희송(숭실대학교)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지 4년 정도 됐어요. 여기 전망대에 오니까 고향생각도 많이 나고, 고향을 잠시 잊고 산 것 같아 죄책감도 들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데 북한쪽에 사회복지가 없으니 미래를 생각해서 전공했어요. 국토탐험대에서 만난 친구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 PM 15:30 5사단에서 병영체험 시작

하룻밤 숙소가 되어준 5사단 내무반 육군에서 가장 좋은 건물중 하나이며 신병교육대로 쓰인다는 이곳 건물에 짐을 풀었다. 실내에서는 규칙상 핸드폰을 모두 반납하도록 했고, 군인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정해진 규율에 따르도록 했다. 여장을 푼 대원들은 식당으로 가서 군인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배식을 받아 저녁식사를 했다. 한편, 김현성, 박종환, 정슬기, 김옥영, 경유라, 김민수 학생 등 각조 조장들은 4일 내내 국토탐험대를 질서있게 이끌며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 느낌한마디 : 임주현, 조용우(성균관대학교)

TV에서 보거나 듣는 것보다 실제로 간접경험을 해보니까 분단현실이 마음에 와 닿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픈 역사가 있긴 했지만 한민족이었으니까 다시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주현).

군대를 아직 안다녀왔는데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아요. 총을 한 번도 안 쏘았는데 공포탄이지만 기관총을 쏘본 게 기억에 남아요. 부대에서 저희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해요(용우).



### PM 19:00 KBS 전국대회만큼이나 치열했던 통일골든벨

식사후 연병장에서는 탐험대원과 장병들이 함께 통일, 역사, 상식을 겨루는 통일골든벨이 열렸다. 탐험대원과 장병들의 연령대가 비슷해서인지 대회전부터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쉽게 어울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막상 퀴즈대회에 들어가서는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패자부활전은 장기자랑 형식으로 진행돼 중간중간 웃음을 주었다. 대회 결과, 대원 중 탈북대학생 1명이 끝까지 살아남았으나 최종3인에 들지 못했고, 1~3등 모두 군인장병들이 차지했다. 대회 후에는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져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느낌한마디 : 김진욱(제주해양대학교)**

1기 행사인데도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사실 통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국토탐험대 참가를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조에 탈북대학생 친구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남서쪽의 끝(해남)이 고향이고 그 애는 북동쪽 끝(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이에요. 거부감 없이 같이 대화하고 노래하는 걸 보니 통일이 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PM 21:30 캠프파이어 다 같이 울고 웃고**

마지막 순서로 캠프파이어가 진행됐다. 탐험대원과 군장병이 섞여 손을 잡은채 모닥불 주변에 둥글게 원을 만들었고 오흥석 청년위원장을 비롯해 참가학생 대표, 5사단 관계자가 불을 당기자 장작은 순식간에 불에 붙었고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온 김영미학생이 통일을 염원하며 곽재구 시인의 '임진강 살구꽃'을 낭송 했고, 개개의 작은 원에서 출발해 거대한 하나의 원으로 합쳐지는 게임을 하기도 했다. 끝으로 모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3일차 민주평통 국토탐험대의 하루가 막을 내렸다.





### 느낌한마디 : 김영미(건국대학교 생명과학)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얼마전 타기관의 통일캠프에 다녀왔는데 탈북학생이 저밖에 없다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 알고 있었고, 상관 없다고, 다르지 않다고 말해주셔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의사가 돼서 고향에 가면 병원을 차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올해는 통일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사진으로 보는 국토탐험대 이모저모

### 8월 20일 1일차

자격증시험과 영어공부 때문에 올까 말까 망설였다는 학생, 민주평통이라는 생소한 명칭에 반신반의하며 참가했다는 학생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국토탐험대의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이내 의구심은 사라지고 김포의 덕포진에서 문수산성 입구까지 11km에 이르는 구간을 4시간에 걸쳐 트래킹을 하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금세 친해졌다. 당초 애기봉전망대 방문 일정을 바꿔 김포 함상공원을 방문, 해군군함을 체험한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 8월 21일 2일차

2일차에는 파주로 이동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미리 준비해온 평화리본달기와 타종식 등을 진행했으며 철마와 자유의다리, 경의선철도 등을 관람했다. 이곳은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안보 유적지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탐험대원들은 북한이 먼 곳이 아니라, 우리민족, 우리영토라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에는 통일촌에서 식사를 한 후 한탄강에서 래프팅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했다. 안재훈 학생은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80명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주평통 국토탐험대가 앞으로 2기, 3기까지 꼭 계속되어 전통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민주평통 통일기원 국토탐험대를 이끈 사람들

### 오홍석 서울지역회의 청년위원장

통일기원 국토탐험대 사업은 민주평통 청년위원회가 서울시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받아 진행됐습니다. 대학생 70명을 모집했는데 150명 정도가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고, 진도와 부산, 해남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자원해 참여했습니다. 민주평통의 안보체험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준 대원들이 자랑스럽네요.



### 장경태 영동포구협의회 청년위원장(기획단장)

이번 행사를 위해 오홍석 위원장님과 밤새워서 기획안을 쓴 기억이 납니다. 원래 걷는 행사로 기획했다가 체험학습을 좀 더 강화해보자는 취지에서 트래킹, 군함 및 전차탑승, 군부대 입소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군부대 섭외를 위해서 6번이나 방문해 설명을 해야 했지요. 이번 1기 참가자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스스로 2기 모집을 준비하는 선순환 형태로 자리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기 청년위원회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등 단합이 잘 되어 좋은 것 같습니다.

### 한중명 관악구협의회 청년위원장(4권역 권역장)

서울 접경 지역 중에 유일하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곳이어서 탐험대 일정으로 김포를 추천했습니다. 김포 근교에서도 철책선이 있기 때문에 함께 걸으면서 의견을 나누고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도 민주평통에 대해 잘 알게 됐지만, 우리 자문위원들도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 경남 통영

# 겨레살의 흥바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파도가 일었다. 몇 번의 자맥질 후 제 몸집을 산처럼 불린 파도가 입을 벌리자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꺼먼 구멍 속으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렸다. 이길 것이라 기대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기겠다고 각오한 것도 아닐 것이다. 그저 살기위해서는 이기는 것 외에 딱히 다른 방도가 없었으리라. 그렇기에, 공포와 맞서 파도를 가르고 앞으로 나아갔으리라.



스크린 속 이순신 장군이 고작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적군과 맞서, 승리한 '명량해전'을 보고 있자니, '진짜' 바다가 보고 싶어졌다. 장군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이 땅의 바다가 말이다. 그래서 떠났다. 경남 통영의 바다에는 어느새 가을이 오고 있었다.

## 질푸른 바다에 새겨진 역사

'바다를 포기하면 조선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않은 옛날, 서슬 퍼런 장군의 호령이 찌렁찌렁하게 울렸을 통영의 앞바다는 생각보다 잠잠했다. 푸른빛으로 감싸인 항구는 역사 속 위협적인 모습과 달리 일견 호수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파도가 들이칠 적마다 짠 내 가득한 몸체를 뒤척이는 거북선과 한 번씩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바다의 울음소리가 만만치 않은 바다의 깊이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흔히 통영을 '충무공의 도시'라고 표현한다. 통영이라는 도시 명 자체도 수군통제사가 머문 통제영이 있던 자리란 말에서 비롯됐다. 임진왜란 당시 해안 경비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조정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했고, 초대 통제사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또한 장군의 시호인 충무는 통영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금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모른다 해도 통영을 여행하며, 이충무공의 흔적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 섬, 서늘 퍼런 기상을 품다

특히 한산도는 섬 전체가 충무공의 유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영 여객선터미널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항되는 여객선에 몸을 싣고 30여 분을 더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인 일대의 크고 작은 섬들을 구경하기에 긴 시간은 아니다. 물에서 봤던 바다와 바다 위에서 보는 바다는 또 다른 얼굴이다. 안전한 듯 난폭하고, 거친 듯 다정하다. 물길을 넘어 마침내 한산도다.



▲ 한산도 일출

절벽 해안으로 구성된 바위섬인 한산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승기를 잡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구성해 조선의 수군을 공격했다. 절대적 열세인 상황에서 이 충무공은 인근 바다로 적을 유인해 적선 70척 중 66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바로 '한산대첩'이다. 장군의 사적지로 유명한 '제승당' 주변을 부지런히 구경하다, '한산(閑山)성 달 밝은 밤에 수루(戍樓)에 홀로 앉자 큰 칼 옆에 차고 기쁜 시름 하는 적의..'의 시구로 유명한 수루에 올랐다. 임태를 앞둔 가을 바다의 풍광이 막힘없이 펼쳐진다. 아름답기에 서글펄듯 그 밤의 바다를 상상하며 풍광에 젖어든다. 그리고 다시 육지로 향하기전 충무사에 들려보길 권한다. 시대를 호령했던 이 충무공의 기개를 닮은 송림의 모양새도 빼어나지만 이 충무공의 영전 앞에 향 하나 피우는 것도 좋으리라.

▼ 제승당



▲ 한산도 전경



## 길을 걸어, 영웅을 만나다

그러나 뱃길이란 사람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없는 법. 혹여 기상상의 영향으로 한산도에 닿을 수 없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충무공의 신위를 모신 충렬사와, 경북궁의 경회루와 여수 진남관과 함께 조선시대 3대 목조건물로 손꼽히는 세병관 등은 육지에서 만날 수 있는 장군의 흔적이다.



▲ 충렬사 사당

먼저 충렬사는 왕명에 따라 지어진 이 충무공의 사당이다. 신위를 보기위해 시작한 발걸음 홍살문을 지나 경문에 오른 후 강한루와 외삼문, 중문, 내삼문 등 네 겹의 문을 차례로 지난다. 문을 하나씩 지날 때 마다 발걸음도 마음가짐도 새삼 차분해 진다. 신위 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이충무공의 수훈을 전해들은 명나라의 황제가 이충무공에게 보낸 8가지 물품인 '명조팔사품'도 놓치면 아쉽다.

그런가 하면 압도적인 규모로 발길은 돌른 시선마저 붙잡는 세병관은 이 충무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객사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박경리, 김춘수 등이 다녔던 학교로 사용됐던 곳이기도 하다. 전쟁이 종결되길 원하는 바람으로 지어진 세병관이란 명칭을 새겨 넣은 거대한 현판을 지나 마루에 앉아본다. 나른한 햇살 아래 시선을 멀리 두자 통영의 땅과 바다가 평온히 펼쳐진다.



▲ 세병관



▲ 통영항



▲ 미륵산에서 바라본 한려수도

이외에도 원 없이 바다를 마주할 수 있는 이순신 공원은 해안을 따라 걷기에 좋아, 관광객은 물론 통영시민들도 곧잘 찾는 휴식처이며, 한국의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륵산은 통영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날이 맑으면 대마도까지 볼 수 있다는 미륵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다도해의 빼어난 풍광 역시 놓치기 아쉽다.

## 파도, 시이자 그림이자 음악이 되다

사실 통영이 이충무공의 사유지로만 유명한 곳은 아니다. 예향(藝鄕)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통영의 항구는 언제나 인파로 북적인다.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풍부한 해산물은 미식가를 자청하지 않더라도 사시사철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만큼 설득력이 있다. 그뿐인가. 이 깊고 푸른 바다의 경취에 취한 예술가들도 한 둘이 아니다.



통영의 물색, 파도소리, 초목. 그 모든 자연이 소리로 들렸다는 작곡가 '윤이상 기념공원'이나 작고하기 까지 고향, 통영을 지켰던 화가 '전혁림 미술관', 꽃 같은 시인 '김춘수 유품전시관', 생전에 유치환이 즐겨 걸었던 골목이라 이름 붙여진 '청마거리', 소설가 '박경리 기념관' 등 학창시절 흠모했던 예술가들의 발자취도 이곳 통영에서 만날 수 있다.



▲ 김춘수 생가(上), 청마거리입구-청마동상(下)

## 청정해역이 차려낸 '진짜' 밥상

볼거리만큼이나 특색 있는 먹거리도 넘쳐나는 통영. 플랑크톤이 많은 남해 앞바다는 어류가 풍부한데다 항구 도시답게 토속음식 역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일까. 통영시 식당 간판에는 '원조'란 말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먹거리가 통영에서 태생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 명계비빔밥



▲ 싱싱한 활어회



▲ 충무김밥

가을 이맘때쯤이라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장어가 별미이며, 요새는 보관법이 발전해 사철 즐길 수 있는 바다 향 진한 명계비빔밥이나 싱싱한 활어회도 놓칠 수 없다. 또 김밥에 오징어무침과 무김치를 곁들여 먹는 충무김밥과 통통하고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굴이나 특산품인 멸치를 이용한 코스요리, 된장으로 양념한 통영 식 시래기국인 시락국, 간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꿀빵까지. 관광일정 뿐만 아니라 먹거리 일정을 따로 챙겨야 할 만큼 '먹거리천국'이다. 혹시 1박 이상 머물 계획이라면 일인 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주류와 제철 안주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는 '다찌'도 즐겨볼 것을 권한다.

<글. 사진. 권혜리 통영시청제공>



우메기떡은 '우메기 빠진 잔치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잔칫상에 빠지지 않고 많이 올려던 떡으로 '개성주약'이라고 불린다. 햅쌀이 나올 때 많이 만들어 먹는 우메기는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막걸리와 물로 익반죽해 동글납작하게 빚은 뒤, 기름에 지져 건진 다음 즈청액을 입혀 만든 음식이다.

## 요리재료

찹쌀가루 350g, 밀가루 150g, 물 1/2컵, 막걸리 3/1컵, 설탕 3큰술  
소금 1큰술, 크렌베리 조금  
즈청액 재료 마늘 한 쪽, 물엿 3큰술, 설탕 1/3컵



## 요리방법



**1**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한 데 섞고 소금 1큰술과 설탕 3큰술을 넣어 체에 내린다.



**2** 미지근하게 데운 막걸리와 물을 넣어 익반죽 한다.



**3** 한 덩어리로 뭉쳐진 반죽을 3cm 정도씩 떼어내어 둥글게 빚은 후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구멍을 내어 도넛 모양으로 만든다.



**4** 150℃ 기름에 노릇하게 지져내어 건져둔다.



**5** 즈청액은 얇게 편으로 썬 생강에 물엿 3큰술과 설탕 1/2컵, 물 1컵을 넣어 중불로 끓여 만든다.



**6** 지져낸 우메기는 즈청액에 담갔다가 크랜베리를 얹어 보기 좋게 상에 낸다.

■■■ 요리연구가 나유신

## 개성의 다양하고 화려한 음식



개성 음식은 주로 손이 많이 가고 재료를 다양하게 골고루 섞어 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주로 임금이 하사한 음식을 따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화려한 궁중음식을 닮았으며, 오로지 그 음식만 찾는 양반들 때문에 더 많은 종류의 음식 개발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개성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우메기떡처럼 즈청을 이용한 개성악과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무 등을 다양한 재료로 화려하게 만들어 내는 개성무찜이 있으며, 소고기, 돼지고기, 두부 등의 재료가 소로 들어가는 개성의 만두 개성주악과 개성경단 등이 있다.





## 북한친구들아, 나랑 같이 우리학교에 가볼래?

애나벨리

저는 북한의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북한의 친구들도 교복을 입으니까 우리나라의 교복문화가 신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한 달에 2번은 사복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은 북한 친구들도 부럽지 않을까요? 그 날의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만점 패션도 보여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학교로 꼭 초대하고 싶어요.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것을 잘 알지는 못 하지만 북한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선생님과 마치 친구처럼 때로는 언니 동생처럼, 삼촌과 조카처럼 그렇게 가깝게 지내거든요.^^ 선생님의 별명과 선생님을 줄인 ' 쌤'을 붙여서 부르기 때문에 더 친근하구요. 공부하기 싫은 날엔 선생님께 수업시간에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를 해달라면서 졸라대기도 하고 오후시간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몰려오는 졸음 때문에 꾸벅꾸벅 졸음이 몰려올 때면 선생님이 일부러 장기자랑 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하죠. 요번 브라질 월드컵이 있던 날은 아침 일찍 강당에 모여서 같이 응원하기도 했어요. 북한친구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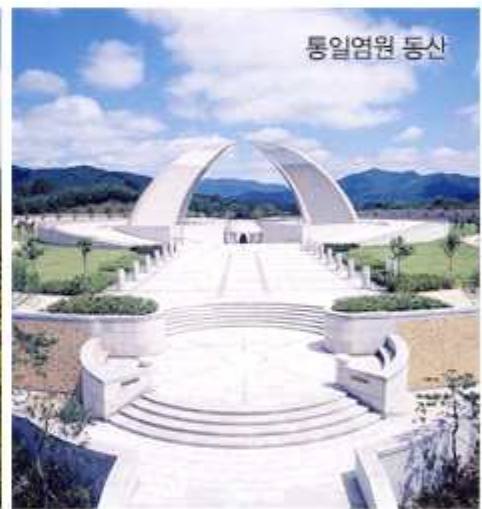
학교급식 먹고는 열심히 매점으로 달려가서는 빵이랑 아이스크림을 또 사먹는 왕성한 식욕을 가진 친구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북한 친구에게 우리 매점의 인기메뉴인 라볶이 맛 과자를 사주고 싶어요. 북한 친구도 한번 맛보면 아마 그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아요^^ 북한친구를 만나면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렇게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면 금새 단짝 친구마냥 하하호호 수다 떠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 북한친구들을 독립기념관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제임스유

북한친구들과 가장 가고 싶은 곳은 독립 기념관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의 보존, 시설 그리고 전시면에서 꼭 한번 같이 둘러보면 좋을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 시대의 핍박과 수탈,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의와 노력들은 남과 북이 함께 해온 역사적 공통분모이기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사뭇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탈주민이나 북에서 온 관리들이 함께 안보견학차 가는 곳 중 하나가 독립기념관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일제시대 뿐 아니라 민족적 수난과, 독립 쟁취를 위해 외세와 싸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사료 및 유물 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북한 친구들이라면 여러모로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에는 통일염원의 동산, 겨레의 탑, 불굴의 한국인 상과 같이 남과 북의 정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물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방문의 의미가 남다른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염원의 동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면서 그 의지를 후세에 길이 전할 마음도 다져보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담긴 문구들 하나하나 보면서 북한 친구들에 통일에 대한 필요성도 잘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발전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전시하며 연구해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이야말로 북한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데려가고 싶은 곳, 그리고 통일 후 북한 주민분들을 가장 먼저 초청하고 싶은 장소로 뽑고 싶네요.

<사진출처 : 독립기념관>

##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어때?

유광열

45억 아시아축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 함께 데려가고 싶네요. 마침 북한에서도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의사를 타전했으니 이모저모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이 세 번째 개최지만, 북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에 차후 단독 또는 통일 후에 열릴 수 있는 아시안 게임에 대한 준비와 그 체계를 익히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가을에 펼쳐질 드라마틱한 감동의 순간 그 주 무대가 될 장소를 미리 방문하여 그날의 환호를 미리 느껴 보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경기장 및 각 종목이 펼쳐지는 시설들을 순회해 보면서 그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IT 강국 인프라를 십 분 활용한 스마트 관리시스템의 구축, 폐막 후 경기장이나 선수촌은 어떻게 재 활용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와 서포터즈는 어떻게 모집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2002년에 개최됐던 월드컵 구장과 지금의 활용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동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 그 당사자인 중국, 일본, 북한이 모두 참가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치와 이념의 갈등을 스포츠 정신과 친선에 기초한 스포츠로 승화시켜, 서울 올림픽이 세계적 탈냉전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던 것처럼, 인천아시안게임 또한 지역적 화해와 평화 회귀에 대한 계기로 작용해서 다소 소원했던 남과 북이 다시 화해국면으로 접어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사진출처 : <http://www.incheon2014.kr/asiadStory/promote/promotions/stadium>>



제주도부터 시작된 장마가 내가 살고 있는 곳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늘이 계속 흐리고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서 늘 우산을 챙겨서 다녀야 해. 아침에 혹시라도 우산을 깜박하게 되는 날은 '비 맞은 생쥐'처럼 비를 쫓딱 맞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

안녕? 난 남한의 대전에 살고 있는 6학년 여학생 조시은이야. 비록 얼굴도 보지 못하고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친구지만 이렇게 편지로나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말하면 난 '북한'을 아주 미워했어. 5학년 때 봉사활동으로 가게 된 대전 현충원에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어. 그 영화의 끝 장면엔 남편을 잃은 여자 배우가 소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엄마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 영화는 12년 전 연평도에서 북한에서 침투한 배와 남한의 배가 서해에서 싸운 '연평해전'을 그린 실화인데 군인이셨던 아빠가 북한군에 맞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셨어. 나는 그 당시 백일밖에 지나지 않은 아기라 기억할 수 없었고 다만 엄마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어. 그런데 영화를 통해 직접 보니 눈물이 실 새 없이 흐르고 가슴은 정말 터질 것 같이 아팠어.

'왜 평화로운 남한에 쳐들어와서 우리 아빠를 빼앗아갔냐고? 사랑하는 아빠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었냐고?' 소리치면서 따지고 싶었어. 정말 북한이 하늘만큼 땅만큼 싫었어.

선생님이 도덕시간에 아무리 북한과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 하셔도 난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빠, 소중한 나의 아빠'를 빼앗아 간 나라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알게 되었어. 식량난, 경제난으로 목숨을 걸고 탈북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 또 탈북한 언니가 말라서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는 뉴스, 먹을 것이 없어 아프리카 난민처럼 뼈와 앙상한 북한의 어린이들의 모습 등 그 뒤로 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싫다, 좋다' 등의 감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땅, 같은 나라에서 같이 숨쉬고 있는 우리의 동포,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지금은 북한이 정말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내가 연평해전에서 아버를 잃게 된 것처럼 어쩌면 북한의 어떤 친구도 연평해전에서 아버를 잃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이 가족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어.

친구야!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처럼 아버가 돌아가시는 슬픔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무기도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무기 만드는 쓰는 돈을 식량난을 해결 하는데 쓴다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될 거야.

또, 휴전선 때문에 서로 가보지 못했던 남북한의 유명한 곳도 직접 가볼 수 있게 돼. 5학년 사회 시간에 배운 정몽주의 피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선죽교에 가서 그 피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중국 대륙을 다 통치했던 고구려인들의 유적지도, 우리 민족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백두산 천지도 직접 가 볼 수 있게 돼.



그리고 너는 조선시대부터 수도였던 서울의 최초의 궁궐 경복궁도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가보지 못했지만 예쁜 옷가게와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는 서울의 가로수 길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명동도 갈 수 있고 유명한 아이들의 콘서트도 볼 수 있게 될 거야. 나는 통일이 되면 꼭 너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 여행도 해보고 싶어.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니?

어서 통일이 되어 서로의 집도 자유롭게 왕래하였으면 좋겠다. 방학이 되면 한번은 우리 집에서 한번은 너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친구야! 혹시 너 그 사실 알고 있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통일이 되지 않고 같은 민족끼리 원수처럼 살고 있다고 해. 독일도 얼마 전까지 우리처럼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해서 지금의 유럽 아니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도 독일처럼 빨리 하나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일이 된다면 처음에는 말도 다르고 생활모습도 달라서 빨리 친구가 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다른 것' 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극복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편해질 거야.

북한에 사는 나의 친구야! 우리 아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일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 무엇이 있을지 항상 생각해보고 노력하면서 하루 빨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월드컵도 한 팀으로 올림픽도 한 팀으로 나가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자. 어때? 난 곧 그렇게 되리라 믿어.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서로 '통일'이 하루 빨리 오도록 같이 노력하자. 약속해!

그럼, 우리가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듣고 만질 수도 있는 통일된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잘 지내자. 그리고 그 때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나자. 안녕!



나는 신소운이라고 해. 중대부속초등학교 2학년이야. 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세 식구가 같은 집에 살고 있어. 학교와 학원에는 친구들이 있지만, 형제, 자매가 없어 외로울 때도 있지.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 중국 베이징에 가서 살기도 했어. 그 때는 아빠도 안 계셔서 더욱 외로웠지만, 2년 후 다시 돌아와서 세 식구가 살게 되었지. 그 후에도 엄마, 아빠를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너희가 살고 있는 북녘 땅에는 가보지 못해 안타까워.

내 혈액형은 O형이야.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활발하지. 혼자 그림 그리거나 종이접는 것을 좋아해서 이 편지지도 만들었고 한복을 입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도 접어 보았어.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줄게.



여행하거나 등산하는 것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포로수용소와 현충원에도 가 보았어. 포로수용소에 갔을 때는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하는 영화도 보고 문제도 풀었기 때문에 조금 슬프고 조금 재미있었지. 현충원에 갔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가족들이 함께 갔는데, 전쟁을 했을 때의 무덤이 많이 있었어.

나는 이 편지를 6월 25일에 쓰고 있어. 포로수용소에서 문제를 풀 때 1950년 오늘 전쟁이 났다고 배웠어.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이가 나빠지고 두 나라고 갈리고 말았지. 다시 한 나라가 되어 너희와 같이 살고 싶어. 너희 나라에도 포로수용소나 현충원이 있니? 그 곳에 가 보았니? 너희를 만나 내가 좋아하는 놀이와 너희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싶어. 너희가 보내는 답장도 받고 싶어.

우리가 친구가 되면 같이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울 것 같거든. 다시 한 나라가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나는 무지개를 타고 날아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그 때까지 안녕! 행복하게 지내.

2014년 6월 25일  
소운이가



글. 서울 신봉 초등학교 6학년 이유민

북녘에 사는 나의 친구들에게!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6학년 이유민이야.

나이는 13살.

어른들은 모두들 북한과 내가 살고 있는 남한이 같은 나라라고들 하시지만, 그리고 북한에 사는 너희들과 남한에 사는 내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내가 북한을 갈 수 없고, 너희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야.

지금 우리는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 곳들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нде 말이야.

저번 주말엔 엄마, 아빠와 임진각에 다녀왔었어.

거기엔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 남과 북을 연결 시켜 주었던 기차가 한 대 놓여 있어.

무참한 폭격의 흔적을 간직한 채로.

그리고 그 앞엔 한 줄의 글이 써 있단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마음을 가득 담아 써놓은 글귀야.



우리는 모두들 북쪽의 땅도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고 싶어 하고, 아름다운 금강산의 모습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구경하고 싶어 하며, 고구려, 고려 선조들이 남긴 웅망한 기상 이 깃든 유적과 유물을 구경하고 싶어 해.

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역사 드라마를 제일로 좋아해.

요새 대한민국 TV에서는 '정도전'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하고 있어.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를 조선의 왕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인 한양의 모든 도시 구조를 만들고 정치 체제를 만든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양에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 시절에는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서로 의논하고 정치를 펼쳤었어.

지금의 북한에 있는 도시.

난 개경에 가서 고려 시절의 흔적들을 만져보며 조상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어.

그리고 너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고 싶어.

아침 햇살에 반사 되어 금빛 색을 내는 63빌딩의 화려함.

한강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강변 북로의 경쾌함.

남산 한옥 마을의 전통스러움.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국 전통 문화의 화합의 장소 인사동의 조화로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와 함께 누리고 싶어.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한반도 땅의 모든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날에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북한음식 자랑하기

내가 먹어본 최고의 북한음식(혹은 맛집)을 소개해주세요~**음식사진은 필수!**  
또는 내가 만들어 본 북한 음식의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북한음식은 통일레시피 코너에서 참고하세요!)



**응모기간** 2014.09.02 ~ 2014.09.26

**응모방법** 북한음식 소개 및 각 인증샷 포함하여 파일첨부로 응모

**당첨자수** 3명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3만원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파일첨부  
응모



# 통일의 별을 찾아라!

웹진 기사 곳곳에 총 3개의 <통일의 별>이 숨어있어요~  
통일의 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찾았다'는 문구가 뜹거예요.  
어디에 숨어있는지 별의 위치를 찾으셨다면,  
아래 비밀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별을 찾으러 GO GO!!**

**응모기간** 2014.09.02 ~ 2014.09.26

**응모방법**

1. 기사를 읽고 별을 찾아 별에 마우스를 올리면 '찾았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2. 총 3개의 별을 찾은 후, 별을 클릭하면 다시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3. 아래에 비밀댓글로 별의 위치를 작성해주세요.

**당첨자수** 20명 **시상내역** 스타벅스 카페라떼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해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자



## '남한사회 적응 TIP'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이름
1	**mh104@naver.com	김성훈
2	**geny08@naver.com	왕나영
3	**st83@naver.com	허도준



## '통일의 별을 찾아라' 이벤트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hehheh0@gmail.com	유페미아
2	**amj26@naver.com	차차
3	**m0618@hanmail.net	밀가루인형
4	**ax7@naver.com	하로하로
5	**scor@mail.com	auscor
6	**hljin@naver.com	달달
7	**h2293@hanmail.net	미리내
8	**nso823@naver.com	뷰티맘
9	**meggoma@naver.com	냐옹이다
10	**gieyang72@gmail.com	Angie
11	**a0676@naver.com	득김
12	**erald21@nate.com	소피마르홍
13	**rkjuny@naver.com	박준
14	**kicute@naver.com	미스에버
15	**04yks-1220@hanmail.net	아메리카노

16	**ub9734@naver.com	오드리햅번
17	**een2297@naver.com	천년의사랑
18	**k7713@naver.com	이용
19	**eamer509@naver.com	잠순이77
20	**unghs5995@hanmail.net	여성농업인
21	**tpdk@empal.com	따리
22	**e215@naver.com	유쾌썬
23	**delook@hanmail.net	햇살가는대로
24	**teto1030@hanmail.net	김석현
25	**hongirl@hanmail.net	지니
26	**sgktn14@naver.com	달리는하이디
27	**ange516@hanmail.net	위기의팬더
28	**i1030@naver.com	올리베티7
29	**asong8571@naver.com	레아송
30	**imsook@naver.com	김현숙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1	**elsogood38@empal.com	010 - **** - 6913
2	**ngid@naver.com	010 - **** - 9984
3	**e6956@hanmail.net	010 - **** - 6161
4	**e0826@naver.com	010 - **** - 3622
5	**sode0321@hanmail.net	010 - **** - 3930
6	**h63841@gmail.com	010 - **** - 6384
7	**rusizm@hanmail.net	010 - **** - 2693
8	**w212121@naver.com	010 - **** - 0041
9	**zi_-174@hanmail.net	010 - **** - 2707
10	**1eal@naver.com	010 - **** - 0537
11	**gml_@hanmail.net	010 - **** - 1021
12	**n3125@naver.com	011 - *** - 9369
13	**muj117@hanmail.net	010 - **** - 1207
14	**pen83@naver.com	010 - **** - 2979
15	**nto@yopmail.com	010 - **** - 1812
16	**mun6366@naver.com	010 - **** - 6366

17	**ysayway@naver.com	010 - **** - 1863
18	**o1424@hotmail.com	010 - **** - 4995
19	**seo90@hanmail.net	010 - **** - 4688
20	**nedickta@hanmail.net	010 - **** - 0629
21	**olgu@naver.com	011 - *** - 8424
22	**meleap713@naver.com	010 - **** - 6648
23	**sroom@naver.com	018 - *** - 8769
24	**w2357@nate.com	010 - *** - 9904
25	**nmodel@naver.com	010 - **** - 5871
26	**dnjs5617@naver.com	010 - **** - 5617
27	**h331@naver.com	010 - **** - 3866
28	**allnew@Hanmail.net	010 - **** - 0278
29	**rhaps00@hanmail.net	010 - **** - 3995
30	**skr81@naver.com	010 - **** - 6842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